

실속 재테크

내게 맞는 주가연계 상품은

“원금 챙기고 수익 올리는 ELD 어때요”

<주가연계예금>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3%대에 머물면서 고수익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단기자금이 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주가연계상품이다.

주가연계상품은 주가가 상승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수익을 안겨주지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에 있어 잘 선택하면 짝퉁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가연계상품에는 크게 ELD(주가연계예금), ELS(주가연계증권), ELF(주가연계펀드), ELW(주식외환펀드)가 있다. 모두 주가지수나 선물, 옵션 등 주가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판매장소는 ELD가 은행, ELS가 증권사, ELF가 증권사·은행·보험회사·자산운용사 등으로 차이가 있다.

최근 주가연계상품의 인기를 반영해 한국거래소는 25일 오후 5시 5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ELF·ELW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ELS와 ELF=ELS는 상품의 수익률이 대체로 개별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

공격적 투자라면 주가연계증권 '제격'

光銀 '코스피지수' 연계 상품 잘 팔려

에 연결돼 움직이고, 정해진 시점의 상품 가격이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면 약속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가령 A증권사가 판매하는 '현대자동차 ELS'가 있다고 하자. 현대차 주가가 5% 이상 오르면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고객들에게 돌려주지만 현대차 주가가 10% 이상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진 만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상품구조를 만든 것이다.

자산의 95% 가량을 안전성이 높은 채권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5% 가량을 주식 선물이나 옵션 등 투기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한다. 특히 조기상환 방식의 ELS는 일찌감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 수익을 챙기지 못하면 주가가 떨어진 만기에 가서는 원금이 손실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ELS는 주로 2~3개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결돼 움직이며 2~3년의 만기를 가지고 있다. 만

기 이전이라도 6개월마다 주가가 약정한 목표수준을 달성하면 조기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준다. 하지만 예금자보호상품이 아닌 만큼 손실에 대해서는 투자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ELF는 ELS에 투자하는 펀드다. ELS와 거의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LS와 수익률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원금손실이 두렵다면 ELD=ELS·ELF와 달리 원금손실 위험이 적고, 실형 원금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ELD다. 고객이 은행 예금에 가입하면 은행이 원금의 95% 가량을 안전성이 보장된 예금이나 채권형태로 운영하고 나머지 5% 가량을 주가지수나 금선물, 달러선물, 원자재 선물 등 고위험 고수익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95%의 자산을 2~3년에 걸쳐 안

정된 채권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할 수 있게 설계되기 때문에 비록 5%의 파생상품 투자에서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ELD는 평균 4%의 이자를 보장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예금을 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도 파생상품 투자수익률이 좋을 때에는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고위험 고수익의 파생상품 투자가 꺼림직한 보수적인 투자자, 원금 안정성이 중요한 투자자들에게는 ELS, ELF보다는 ELD가 제격이다. ELD는 시중은행들이 특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판매시기와 상품종류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광주은행은 이달 들어 코스피 200지수에 연계한 '더블찬스정기예금 37호와 38호, 39호'를 잇따라 출시해 37호가 55억원, 38·39호가 30억원씩 팔려 나가는 성과를 거뒀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최저 100만원부터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데다 원금보장에 최고 연 16.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역민·기업 필요자금 제때 지원”

취임 1년 맞는 송 기 진 광주은행장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26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송 행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불구하고 지난 1년동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지방은행의 역할은 물론 9%에 달하는 순이익 증가 등 상당한 경영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행장은 취임직후부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 올해 들어서만 2천 95억원을 신규 대출함으로써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60.1%까지 높였

다. 대표적인 중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443개 업체에 1천600억원이 지원된 산업단지 입주업체 맞춤형 상품인 '하이 클러스터론'과 1년 만에 224개 업체를 선정한 '소호명가'를 들 수 있다.

경영성과측면에서는 순영업이익을 1년만에 145억원(9.0%) 늘려 1천748억원을 올렸고 은행 영업의 핵심인 순이자 마진(대출이자율과 예금이자 차익)도 0.21% 포인트 올려 2.35%로 높였다.



특히 자산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도 지난해 12.1%이던 것을 5개월 만에 13.0%로 올렸다.

송 행장은 “수익성·건전성을 중시하고 고객들로부터 매력있는 은행으로 평가받고 싶다”며 “지역민들과 기업들이 정말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초우량 지역은행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향토유통점 빅마트 내일 화순점 오픈

향토유통점 빅마트가 25일 화순점을 오픈한다.

화순을 삼천리에 위치하며 3천305㎡(1천평) 규모다. 지역 최초로 '채소 신선실'을 갖췄고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도 축산물 코너에 도입된다.

매월 영수증 금액을 합산해 총금액의 일부를 각 사회단체에 현금으로 후원할 방침이다.

하상용 빅마트 대표이사는 “화순점은 저비용 구조로 얻은 혜택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새로운 유통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삼성화재 상무시대 개막

지상 18층·지하 4층 규모 신사옥 준공

삼성화재가 광주 상무지구에 신사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상무시대를 열었다.

삼성화재는 2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 건너편에 지상 18층, 지하 4층, 연면적 3만 1천590㎡ 규모의 신사옥을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과 성기재 호남사업부장 등 회사 임직원과 광주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

35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문을 연 상무사옥에는 삼성화재 호남사업부를 비롯해 삼성화재 광주지역단, 광주보상센터, 호남고객지원센터, 광주보상콜센터 등이 입주해 호남권 고객들을 위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상무사옥 준공을 통해 호남지역 랜드마크로서 회사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과 동시에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은 “문화도시이자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광주에 사옥을 준공하게 돼 기쁘다”며 “상무사옥 준공은 호남지역의 영일 및 고객서비스를 위한 거점을 더욱 확고히 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아차 쏘울 '10대 멋진 車' 美 켈리블루북 선정

광주에서 만든 기아자동차 쏘울이 미국의 '10대 멋진 모델'로 선정됐다. 23일 기아차미국법인(KMA)에 따르면 크로스오버차량인 '쏘울(SOUL)'이 미국 자동차 관련 정보사이트인 켈리블루북(KBB)이 선정한 '1만8천달러 미만 멋진 10대 모델'에 포함됐다. 켈리블루북은 안전도와 연비, 승차



감, 기동력, 내부공간 등에 대한 실구매자들의 평가와 전적으로 구매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해당 모델의 매력도를 더해 10대 모델을 선정했다.

켈리블루북은 “기아 쏘울은 뛰어난 디자인에 블루투스 기능, 아이팟 연결 잭 등 최첨단 기술들을 갖췄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잠자는 주식 찾아가세요”

주식 실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휴면 주식'이 2억5천만주에 달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인 찾기 캠페인에 나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올해 4월 말 현재 자체 보관 중인 미수령주식이 2억4천 767만주(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650여개사 주식)에 이르고 있다며 24일부터 '미수령주식 찾아가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평가액은 시가로 약 3천 580억원(비상장법인은 액면가 기준), 실소유자는 법인을 포함해 2만5천89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수령주식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카드 등을 지참하고 예탁결제원 여의도 본원이나 부산, 광주, 대전에 있는 지원을 방문하면 된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National Life Insurance (국제보청기) featuring a family and various insurance services. Text includes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and '1. 매우 잘 들립니다. 2. 안전 보웁니다. 3. 가격이 맘에 듭니다.' Website: www.nliif.com